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학위논문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 향 희

#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수준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지도교수 옥 선 화

이 논문을 생활과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 향 희

이향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 초록

#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 수준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은 돌봄 지원을 요청하는 기혼 성인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사건으로서,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간 관계의 영향을 받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성장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적 특성은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생활사건에 대처하는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가족 내 관계의 특성을 원가족 관련 요인이라고 할 때, 가족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관련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가족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원가족 관련 요인은 부모자녀 관계 특성을 반영하는데, 그 중 부모와 성인자녀의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의 정도를 조절해주는 심리적 거리규제인 가족분화 수준은 부모자녀관계의 성숙한 상호작용 방식과 정서적 건강성을 잘 나타낸다. 따라서 기혼 성인자녀가 지각한 가족분화 수준은 가족체계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설명하는 원가족 관련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할 때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부모나 돌봄 지원을 받는 기혼 성인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이외에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은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간의 관계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 방식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족분화 수준은

부모와 성인자녀가 자율적으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계속 친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기혼 성인 자녀와 부모의 성숙한 관계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 그러므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기혼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새로운 세대관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 성인자녀의 원가족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기혼성인자녀가 지각한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의 범위인 '행정구' 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와 동일한 행정구 내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혼 성인 남성 327명과 여성 331명 총 65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분석대상은 부모와 동일한 행정구 내에 거주하는 응답자 남성 72명, 여성 105명으로 총 177명을 대상으로 본 분석을 하였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t-검증, 공간 분석을,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 성인자녀 중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맞벌이

를 하는 기혼 여성이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둘째, 기혼 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가족분화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원가족 부모와 긍정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지원관계에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혼여성일 때,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여전히 돌봄에 있어서 여성이 주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외현적으로는 남아선호사상과 부계주의 특성이 사라진 양성평등 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나, 여전히 가족 내 자녀 돌봄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부간 역할분리의식이 남아있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며, 다른 도시 혹은 농촌 지역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성인집단과 다른 지역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성인집단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돌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이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규칙적으로 돌보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돌보는 경우 돌봄 지원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기혼 성인자녀가 지각한 부

모자녀 관계의 특성이 부모의 돌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족분화 수준이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여성이 여전히 가족 내 자녀 돌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신이 수행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원가족 내 지지망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주요어:** 가족분화 수준, 손자녀 돌봄, 거주지 근접성, 성별차이

**학번:** 2010-21619

#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선행 연구 고찰.....	5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5
2. 가족분화.....	9
I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14
1. 연구문제.....	14
2. 변수의 정의.....	15
1) 가족분화 수준.....	15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15
3) 거주지 근접성.....	15
IV. 연구방법.....	17
1. 조사대상 및 분석대상 선정.....	17
2. 측정도구의 구성.....	19
1) 가족분화 수준.....	19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20
3) 사회인구학적 특성.....	20
3. 자료분석방법.....	22
V. 연구결과 및 해석.....	23
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3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실태.....	26
3.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28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가족분화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	32
VI. 결론 및 제언 .....	36
참고문헌 .....	41
부록 .....	49
Abstract.....	59

## 표 목차

<표 1> 기혼 성인자녀의 특성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미치는 영향-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18
<표 2>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5
<표 3>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	26
<표 4> 분석대상자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실태 .....	28
<표 5> 기혼 성인자녀의 특성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미치는 영향.....	31

## 그림 목차

<그림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분화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34
--	----

## 부록 목차

<부록 1> 분석에 포함된 주요변수들간 상관관계 .....	49
<부록 2> 전체 조사대상자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 .....	49
<부록 3>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경향 .....	50
<부록 4> 전체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 경향 .....	50
<부록 5> 질문지 .....	51

## I. 문제 제기

우리나라 가족은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이 많으나,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정확대가족적인 특성도 나타나고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데, 부모가 취업한 기혼 성인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혈연중심 문화에서 오는 양육책임감으로 손자녀 돌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은정·정순돌, 2011; 배지희·노상경·권경숙, 2008; 이영숙, 2010; 이은희 외, 2009).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주된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68.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조부모가 주된 양육자라고 답한 경우가 12.9%에 달하였다.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9.5%만이 기관을 이용하였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12.3%로 아동의 어머니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은 사적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특성에 따라 사적 부문의 돌봄의 양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안전망 기능을 하므로, 기혼 성인자녀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함은 물론 경제적 활동까지 가능하게 한다(김순기·유영주, 1994; 김정석·김익기, 2000; 신화용·조병은, 2004; 윤현숙, 2003; 한경혜·홍진국, 2000)고 밝혔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이면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이웃에 의한 가정 내 보육을 선호하였고, 보육에 대한 만족도도 공적보육 보다는 사적보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2004; 나정·서문희·유희정·박기백, 2003; 서문희,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자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문제를 들고 있음을(통계청, 2011) 고려할 때, 조부모의 돌봄 지원은 미취학자녀 양육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기혼 성인자녀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떠한 요인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연구는 주로 돌봄 지원을 하는 조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돌봄 지원을 받는 기혼 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기혼 성인 자녀가 취업모일 때, 미취학 자녀의 연령이 3세 미만일 때 시가나 친정의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선호하였고(강희경·조복희, 2005),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부모 및 시부모와 함께 살거나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정경희, 2002). 또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와 그렇지 않은 조부모 집단을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젊은 조부모 집단이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없는 비율이 높으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비양육 집단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성기옥·팽경희·최희진·최소영, 2011).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를 중심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살펴 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은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간의 관계에 기초하므로 앞서 제시한 연구에서 알려진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외에 기혼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적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혼 성인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가족을 형성한 후에도 원가족(family-of-origin)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현재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남순현·한성열, 2003), 기혼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가족 관련 요인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원가족이 기혼 성인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결혼 전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이나 결혼 후 부부관계에 미치는 측면에서 연구된 것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원가족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Anderson과 Sabatelli(1990)는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라는 개념을 통해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과 거리조절 유형을 설명하였다. 핵가족과 수정확대가족의 가족체계를 모두 갖고 있는 한국 가족구성원간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족분화의 개념은 결혼한 성인자녀의 핵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설명할 수 있는 원가족 관련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혼 후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성인 자녀가 원가족의 부모에게 손자녀의 돌봄을 요청할 때,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와 동시에 정서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는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의 방식은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부모 자녀간 거주지 근접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거주지 근접성과 세대 간 교환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한경혜·한민아, 2004)에 의하면, 거주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대간 지원교환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을 둘러싼 물리적인 요인 즉, 거주지 근접성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물리적인 요인을 통제했을 때, 가족분화 수준이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의 교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족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성차(gender difference)(정현숙·유계숙, 2001)에 따라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가족체계 정서과정에는 성차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남순현, 2003; Rossi & Rossi, 1990; Shehan & Dwyer, 1989)을 바탕으로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 수준에 따라 부모의 돌봄 지원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기초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 수준과 거주지 근접성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거주지 근접성을 통제했을 때, 기혼 성인자녀의 성별과 가족분화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가 성인 자녀가 핵가족을 형성한 이후의 부모 자녀간 돌봄 지원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하는 가족분화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II. 선행 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들에 대한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Lee & Bauer, 2009) 부모자녀관계 특성 중에서 가족분화와 기혼성인자녀의 성별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분화 및 성별과 가족분화 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주로 본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손가족과 취업모가족, 또는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과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가정해체 등 가족문제로 인해 형성된 조손가족에서의 손자녀 돌봄과 여성취업 등의 이유로 인한 부분적 또는 협력적 의미의 양육지원으로 구분된다(김미혜 외, 2011). 조손가족의 손자녀 돌봄은 저소득층, 소수민족, 농촌지역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박충선·이영석·정일선, 2003; 배진희, 2007; Joslin & Brouard, 1995; Fuller-Thomson, Minkler, & Driver, 1997). 한편 성인자녀가 1차적 양육을 담당하지만 성인자녀를 도와 부분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인 손자녀 돌봄 형태는 성인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발생 한다(김은정, 2011).

연구결과들을 보면 기혼자녀가 취업모인 경우(강유진, 2011; 권인수, 2000; 김승용·정미경, 2006; 박화운·이영숙; 1999; 배지희 외,



2008; 심영숙·서영미, 1999; Lee & Bauer; 2009) 조부모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혼 성인자녀가 여성일 때 (김승용·정미경, 2006; 김오남, 2007, 백경숙·김영란, 2006; 심영숙·서영미, 1999; 이운정·고선강, 2011), 기혼 성인자녀가 어릴수록(이운정·고선강, 2011), 기혼 성인자녀가 양육하고 있는 미취학 자녀가 어릴수록(성지미·차은영, 2001), 그리고 조부모의 건강이 좋을 때 (서동인, 1996; 성지미·차은영; 2001; 이미숙·조병은·강란혜, 2004), 조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거주지 근접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간의 거주지 근접성을 주로 동거 여부로 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 근접성이 돌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보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과 관련된 거주지 근접성 연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간의 거주지 근접성은 세대간 지원교환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도구적 성격의 지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경혜·한민아, 2004; Hogan, Eggebeen & Clogg, 1993; Thomas, 1993).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의 거주지 근접성을 살펴보면, 남성 중심의 친족관계에 기초한 전통 한국사회에서는 시가와 동거하거나 근거리에 살면서 상호지원이 활발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모계 친족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비율이나 접촉빈도가 증가하였고, 상호지원 교류도 1980년대에 비교하여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영, 2002; 김순옥·김수진, 2002; 김주희, 2009; 조정문, 1997).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와 기

혼 성인자녀간의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손자녀 돌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용·정미경, 2006; 김재희, 2010; 박화윤·이영숙, 2006; 최혜지, 2004; Bernal & Anuncibay, 2008; Fischer, 1983; Lawton, Silverstein & Bengtson, 1994; Muller & Elder, 2003; Poelmann, 2001; Silverstein & Marengo, 2001; Whitbeck, Hoyt, & Huck, 1993).

Bernal과 Anuncibay(2008)의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손자녀와는 같은 도시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Muller와 Elder(2003)의 연구에서도 조부모가 손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손자녀 양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와 그렇지 않은 조모를 비교했을 때,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 과반수이상인 기혼 성인자녀와 30분 이내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돌봄 조모의 대부분이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은 손자녀 돌봄 지원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김승용·정미경, 2006).

또한 손자녀와 조부모가 얼마나 가까이 거주하는지는 함께 상호 작용하고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부모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김재희, 2010; Fischer, 1983). Muller와 Elder(2003)의 연구에서도 손자녀에게 영향적이고 지지적인 조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거주지 근접성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냈다.

한편, 여성이 취업을 하면 시집에 비해 육아나 가사를 부탁하기 쉬운 친정 근처에서 사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는 연구(남순현, 2000; 최셋별·이명진·김재은, 2003)들은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간의 도구적 지원교환을 위해 부모와의 가까이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지원교환 관계에서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이효재, 1971; 박시라, 1999)이 높을수록 자주 접촉하고 기능적, 친목적, 의례적 유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시라, 1999)는 점은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가까이 사는 경우도 있음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은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Rossi와 Rossi(1990)는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간에 접촉하거나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빈도가 원가족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Troll과 Smith(1976)는 성인 가족의 정서적 유대는 접촉 빈도나 주거상의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순현(2000)의 연구에서도 주거상의 거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와 물리적 거리에 관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그동안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의 세대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을 응답자가 지각한 거리로 측정하거나 행정구역 체계 내에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동에 거주, 시내(군내), 도내, 타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누거나(한경혜·한민아, 2004) 기혼 성인자녀와의 주거거리를 이동 시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하거나(김미영, 2001; 김승용·정미경,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기혼 성인자녀와 동거하는지 여부(강유진, 2011; 김은정·정순둘, 2011; 배지희 외, 2008; 심영숙·서영미, 1999; 오진아, 2006; 이영숙, 2011; 정재원·김문정, 2010; 조운주, 2006; 최혜지, 2004)로 측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의 거주지 근접성을 동일한 '행정구' 내에 살고 있는지 여부로 나타내고자 한다. 부모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했을 때, 같은 동네에 따로 사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연구결과(조윤주, 2006)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 라고 응답한 연구결과(노신애·진미정, 2012)를 바탕으로 같은 동네의 개념을 동일한 '행정구' 로 선정하였다.

## 2. 가족분화

### 1) 가족분화 수준

가족분화란 친밀성과 자율성의 균형의 정도를 조정해주는 가족 내 거리조절(distance regulation) 유형 또는 상호작용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가족체계 내 가족 구성원들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Anderson & Sabatelli, 1990).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의 연결성과 분리성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가족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은 가족 내의 연결성과 분리성에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연결성 없이 분리성만 보이거나 분리성 없이 연결성만 보이는 극단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지니게 된다(Anderson & Sabatelli, 1990; 남순현, 2000).

분화(differentiation)는 Bowen(1978)이 핵가족 체계에서 가족 구성원간 융합의 정도 또는 밀착된 정도와 정서적 교류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개념인데, 이에 대해 Anderson과 Sabatelli(1990)는 개인수준이 아니라, 가족체계 내에 분화의 개념

을 적용하여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의 발달과 발달에 따른 변화에 가족전체가 적응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가족분화는 Bowen(1978)이 정의한 분화(differentiation)와는 다른 개념인데, 가족분화가 가족수준의 변인으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분화는 개인 내적인 변인이다. 따라서 가족분화의 개념은 가족체계의 변인으로, 가족구성원이 자기를 유지하는 능력인 자율성과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자기분화와 구분된다(남순현, 2000).

가족분화 수준은 가족구성원내에서 하나 이상의 이인관계(multiple dyadic)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각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호작용 방식과 관계가 있다(Anderson & Sabatelli, 1993). 이를 통해 결혼한 성인자녀가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은 결혼 이후의 부모자녀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들간의 친밀성과 자율성의 균형으로 정의되는 가족분화는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및 낮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Allison & Sabatelli, 1988; Gavazzi & Sabatelli, 1990).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가족 외적인 변화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과 통합을 유지하려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가족구성원간에 높은 수준의 가족 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족구성원들간의 대인간 거리가 분리성과 연결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개별성과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의미 있는 타인과의 정서적 친밀성을 촉진시킨다(Allison & Sabatelli, 1988).

중간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높은 수준의 가

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보다 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가족구성원들은 대개 경직된 가족체계를 유지하며 덜 융통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보인다. 외부의 변화에 직면했을 때,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변화에 대한 요구에는 자아를 통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적응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부변화에 대해 쉽게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불안해하며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대처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중간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개별화와 심리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가족체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인 융합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Gavazzi & Sabatelli, 1990).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높이는 가족구성원들은 분리성과 연결성의 균형을 보이지 못하는데, 이러한 가족구성원들은 연결성 없이 분리성만 보이거나 분리성 없이 연결성만 보이는 두 가지 극단적인 거리조절 유형을 보인다. 연결성 없이 분리성만 강조되는 가족 내 거리조절 유형은 가족 구성원들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필수적인 정서적 연결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분리성 없이 연결성만 강조되거나 가족구성원간의 경계가 모호할 때, 가족구성원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방해하는 정서적 융합을 강요 받는다. 이는 개인 성장의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Allison & Sabatelli, 1988). 이상에서 가족분화 수준과 가족의 기능간의 관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족분화 수준은 원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부모자녀관계의 건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가족분화 수준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Anderson과 Sabatelli(1992)는 가족체계의 역동이 친구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지적이고 불안과 우울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Bartle과 Sabatelli(2003)의 연구에서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아내와 남편 모두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부의 가족분화 수준은 상대방의 결혼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Gavazzi(1993)의 연구에서는 가족분화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가족 내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친구관계의 문제를 덜 보였고, 높은 가족분화 수준은 비행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보호 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가족분화 수준이 높은 신혼기 부부가 원가족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불안을 덜 느끼며, 결혼 후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순현·한성열, 2003). 위의 연구결과들은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인 가족분화 수준이 개인이 처한 발달단계에서의 심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가족분화 수준은 성인 자녀의 결혼 이후에도 부모자녀간의 생활사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작용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분화 수준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성별과 가족분화 수준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감, 접촉빈도, 상호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 성별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Rossi & Rossi, 1990)고 한다. 즉, 결혼 후 원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라도 딸이 아들보다 부모와 더 잦은 접촉을 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

한다(Rossi & Rossi, 1990).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정서적 유대감은 가족 내 다른 어떤 하위체계보다도 어머니와 딸에게서 가장 강하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성별로 본 가족분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편과 아내의 가족분화수준이 부부의 결혼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artle & Sabatelli, 2003)에서는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여성의 가족분화 수준이 남성에 비해 부부의 결혼 적응에 큰 설명력을 지녔다고 보고했다. 가족분화 수준은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개별화 정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성별이 같은 부모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부모와의 개별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부모와의 개별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hun & MacDermid, 1997).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분화 수준이 대인관계 양식인 '관계적 자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김태희, 2008)에 따르면 성별과 가족분화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관계적 자기의 하위 요인인 주도성, 관계의존, 도구적 관계 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음을 밝혀냈다. 위 연구결과는 남성이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에 비해 관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도구적이고 실리적인 관계를 통한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별에 따른 가족분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연구(김태희, 2008)와 청소년의 가족분화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Gavazzi, 1993)를 통해 성별에 따른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은 좀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자녀 돌봄 서비스 실태를 알아보고, 기혼 성인자녀의 원가족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기혼성인자녀가 지각한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 성인자녀의 성별과 가족분화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을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여부에 가족분화 수준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분화 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 2. 변수의 정의

### 1) 가족분화 수준

가족분화는 가족구성원간의 연결성과 분리성의 균형의 정도를 조정해주는 가족 내 거리조절 유형 또는 상호작용 유형이라고 정의한다(남순현, 2000; Anderson & Sabatelli, 1992).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 아버지와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 두 차원에서 가족분화수준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와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상호작용 유형이며, 아버지와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상호작용 유형이다.

###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는 조사대상자의 가장 나이 어린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평일에 기혼 성인자녀의 부모가 정기적인 또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지 여부로 정의하였다.

### 3) 거주지 근접성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 사이의 지리적인 근접성은 각 세대가 소유한 경제적·정서적 자원을 교류하는 데 기여한다(박경숙, 1997).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교통수단의 발달은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의 지리적인 거리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동안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의 세대관계를 다룬 논문에서는 부모와의 근접성을 주로 응답자가 지각한 거리로 측정하거나 행정구역 체계 내에서 구분하였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자녀와 같은 동네에 따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조윤주, 2006)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라고 응답한 연구결과(노신애·진미정, 2012)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을 부모와 동일한 ‘행정구’ 내에 살고 있는지 여부로 설정하였다.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분석대상 선정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예비 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본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12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기혼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리서치 전문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2012년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연구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패널들이 조사에 응했다. 온라인 설문지의 특성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설문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없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부모의 돌봄 지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양친 모두 생존해 계시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sup>1</sup> 만을 선택하였는데, 서울에 거주하며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현재 기혼상태의 남성 327명, 여성 331명 총 65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의 특성이 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여부에 미

---

<sup>1</sup>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은 부모와 동거할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의 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조부모와의 동거/비동거를 나누지 않고 조사대상을 표집하여 동거여부를 통제변수로 넣었는데 동거하는 손자녀를 돌보아주는 경우 돌봄의 질과 형태는 비동거 하는 경우와는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혼 성인자녀의 특성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미치는 영향-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

(N=658)

	모델	
	b(S.E.)	odds ratio
상수	-2.18(2.99)	
<b>사회인구학적 변수</b>		
성별 (여성=1)	.36(.20)	1.43
연령	-.05(.02)*	.95
월 평균 가구수입	.03(.25)	1.03
최종학력(고졸=1)		
대졸	.62(.29)*	1.85
대학원 이상	.67(.38)	1.95
맞벌이 여부(맞벌이=1)	.43(.20)*	1.53
경제적 지원 여부	.29(.19)	1.34
가족분화 로그 값	.10(.17)	1.11
거주지 근접성 <sup>2</sup>	1.44(.19)***	4.22
df	9	
LR카이제곱	86.10	

(\* $P<.05$ , \*\*\* $p<.001$ )

분석 결과, 기혼 성인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행정구 내에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주지 근접성의 여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변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현저히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

<sup>2</sup>1=부모와 동일 행정구에 살고 있는 경우(N=177)

0=부모와 동일 행정구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N=481)

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부모와 가까이 사는 기혼 성인자녀도 있음을 고려할 때(김미영, 2001; 조윤주, 2006),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 여부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자료도 선행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할 때, 부모와 거주지가 근접한 경우인, 부모와 동일한 '행정구' 내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177명에 한해서 분석하기로 하였다.

## 2. 측정도구의 구성

### 1) 가족분화 수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인자녀와 그들의 부모와의 분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Anderson과 Sabatelli(1992)가 개발한 가족분화 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cale, DIFS)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각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지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지각 등 대상만 다른 동일한 내용으로 된 문항에 각각 응답하였다. 예를 들면, 각 조사대상자는 “아버지는 내 견해가 아버지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나는 아버지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어머니는 내 견해가 어머니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나는 어머니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에

대해서 각각 응답해야 하며,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 분화의 점수는 5점에서 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분화 수준이 높다. 아버지와의 가족분화 점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점수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지각 점수 각각의 총 점수를 곱한 것이다. 어머니와의 가족분화 점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구해졌으며, 부모와의 가족분화 점수는 아버지와의 가족분화 점수와 어머니와의 가족분화 점수를 각각 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체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점수의 총점을 곱한 것은 이인간의 가족분화수준과 가족분화수준의 차이를 보다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Anderson & Sabatelli, 1992). 이 연구에서 4개 하위 체계 별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s  $\alpha$ 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은 .87,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지각은 .85,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90,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지각은 .85로 나타났다.

##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는 평일에, 가장 나이 어린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평일에 규칙적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와 비규칙적으로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 3)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구수입, 학력, 맞벌이 여부로 나누어서 물어보았다.

### (1) 연령

연령은 응답자가 만 나이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2) 월 평균 가구수입

월 평균 가구 수입은 응답자가 직접 적도록 하였으며, 분석 시 로그 값을 사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3) 학력

학력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의 5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고졸 이하와 대졸, 대학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시 고졸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4) 맞벌이 여부

맞벌이 여부는 가족의 수입원을 선택하게 한 문항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모두 선택한 응답자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5)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돌봄 비용을 제외한 생활비나 용돈 등을 기혼성인자녀가 부모에게 드리고 있는지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다. 돌봄 비용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는 다른 성격임을 구분하여, 경제적 지원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

(6). 거주지 근접성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은 부모와 기혼자녀가 서울특별시의 동일한 행정구 내에 거주하는 경우만을 선택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TATA 11.0 이 사용되었다.

## 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부모와 동일한 행정구 내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분석대상자는 총 177명이며 남성은 72명, 여성은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다.

분석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61세(SD 4.13)이며, 남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5.35세(SD 3.75), 여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2.42세(SD 3.97)로 남성 응답자가 2.93세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남녀 응답자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남성 응답자의 73.61%, 여성 응답자의 66.67%이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는 대학원 이상이 16.67%로 두 번째, 여성 응답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1.9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남성 응답자의 경우 사무직 75%, 전문직 13.89%, 생산직과 자영업 모두 2.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전업주부 41.90%, 사무직 41.90%, 전문직 6.6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1.49명(SD .60), 여성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1.42명(SD .60)으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자 모두 자녀수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남성 응답자의 55.56%, 여성 응답자의 63.81%이다. 두 번째로는 남녀 응답자

모두 2명으로 남성 응답자의 41.67%, 여성 응답자의 30.48%이며, 자녀수가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의 2.78%, 여성의 5.71%이다.

남성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수입은 393만원(SD 134.58)이었으며 여성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수입은 437만원(SD199.58)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여성 응답자 중 월 평균 가구수입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남성에 비해 2.5배 정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수입이 400만원대가 37.50%, 300만원대가 26.39% 순으로, 여성 응답자는 300만원대가 21.90%, 600만원 이상이 20.9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인 응답자는 남성의 경우 44.44%, 여성의 경우 52.38%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맞벌이 가정인 비율이 높았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77)

구분		남성 (N=72)	여성 (N=105)
연령	만 19세~29세	3(4.17)	21(20.00)
	만 30세~39세	57(79.16)	79(75.24)
	만 40세~49세	12(16.67)	5(4.76)
교육수준	고졸	7(9.72)	23(21.90)
	대학 졸업	53(73.61)	70(66.67)
	대학원 이상	12(16.67)	12(11.43)
직업	전업주부	0(0)	44(41.90)
	전문직	10(13.89)	7(6.67)
	사무직	54(75.00)	44(41.90)
	판매서비스직	1(1.39)	3(2.86)
	생산직	2(2.78)	0(0)
	자영업	2(2.78)	3(2.86)
	기타 및 없음	3(4.17)	4(3.81)
미취학 자녀 수	1명	40(55.56)	67(63.81)
	2명	30(41.67)	32(30.48)
	3명이상	2(2.78)	6(5.71)
월 평균 가구수입	100만원대	2(2.78)	5(4.76)
	200만원대	10(13.89)	16(15.24)
	300만원대	19(26.39)	23(21.90)
	400만원대	27(37.50)	21(20.00)
	500만원대	8(11.11)	18(17.15)

	600만원이상	6(8.34)	22(20.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44.44)	55(52.38)
	비 맞벌이	40(55.56)	50(47.62)

조사대상자의 가족분화수준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표 3>과 같다. 가족분화 로그 값은 총 16.03점 만점에 평균 14.53점(SD 0.51)이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조사대상자는 56명이며, 평균 25.18(20.71)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

분석변수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사례수
가족분화 로그 값	14.53(.51)	12.54	15.82	177
경제적 지원(만원)	25.18(20.71)	5	100	56

##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실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 <표 4>와 같다. 조부모가 미취학 손자녀를 돌봐주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44%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67%로 나타났다. 여성이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본 결과는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동거인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는 친손 보다 외손이 많다는 연구(이영숙, 2010)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일 때, 부모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윤정·고선

강, 2011)를 지지한다. 또한 기혼 성인자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66%로 나타났는데, 남성이면서 맞벌이를 할 때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59.38%, 여성이면서 맞벌이를 할 때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70.91%로 남성보다 여성이 맞벌이를 할 때 부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기혼 성인자녀 또는 성인자녀의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손자녀 돌봄 지원을 제공한다는 선행연구들(권인수, 2000; 배지희·노상경·권경숙, 2008; 배진희, 2007; 심영숙·서영미, 1999; 이미숙·조병은·강란혜, 2004)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일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 딸이나 며느리가 일하는 경우가 62.6%에 달해 성인자녀의 취업이 조모의 손자녀 양육의 주요한 원인임을 나타내며, 조모 중에서도 특히 취업모의 친정어머니가 가장 많이 양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손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며느리나 딸의 취업여부를 알아본 선행연구에서도 대다수가 취업상태임을 나타냈다(김승용·정미경, 2006; 김오남, 2007, 백경숙·김영란, 2006; 심영숙·서영미, 1999; 이영숙, 2010).

<표 4> 분석대상자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실태

(N=177)

		제공받음 (%)	제공받지 않음 (%)	합계
남성 (N=72)	맞벌이	19(59.38)	13(40.62)	32
	비맞벌이	13(32.50)	27(67.50)	40
	합계	32(100)	40(100)	72
여성 (N=105)	맞벌이	39(70.91)	16(29.09)	55
	비맞벌이	32(64.00)	18(36.00)	50
	합계	71(100)	34(100)	105

### 3.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가족분화 수준 변수를 포함시킨 모델 1의 이항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델 1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 여부와 가족분화 수준 변수를 투입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구수입, 학력, 맞벌이 여부 그리고 경제적 지원 여부가 포함되었는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성별이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일 때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승산비가 2.46이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승산이 146%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부모와 돌봄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비동거인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는 친손 보다 외손이 많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영숙, 2010). 이는 부계가족원리의 전형적인 가족관계 특성이나 지원체계와 차이를 보이는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조부모가 친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외손자녀를 돌보는 비율보다 높다는 결과(김승용·정미경, 2006; 김오남, 2007, 백경숙·김영란, 2006; 심영숙·서영미, 1999)도 불과 수년전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의 가족지원체계가 변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최근에 들어 여성이 자신의 부모에게 돌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 수준 변수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간에 접촉하거나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빈도가 원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Rossi & Rossi, 1990)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은 기혼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인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 보다는 실제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와 Bauer(2009)의 연구에서도 기혼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 만족도는 전일 또는 부분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 연구결과



역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간의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외부환경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부모가 돌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기혼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할 때, 손자녀 돌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는 연구결과(Lee & Bauer, 2009)를 보면 부모자녀 관계 특성이 조부모의 돌봄 지원의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기혼 성인자녀의 특성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미치는 영향

(N=177)

	모델 1		모델 2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상수	-6.14(5.33)		10.89(8.87)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여성=1)	.90(.36)*	2.46	-25.41(10.87)*	0.00
연령	-.07(.05)	.94	-.07(.05)	.93
월 평균 가구수입	.29(.43)	1.34	.44(.43)	1.55
최종학력(고졸=1)				
대졸	.40(.44)	1.50	.32(.46)	1.37
대학원 이상	-.31(.61)	.73	-.52(.63)	.59
맞벌이 여부				
(맞벌이=1)	.56(.35)	1.75	.62(.35)	1.87
경제적 지원 여부	.65(.37)	1.91	.75(.38)*	2.12
가족분화 로그 값				
가족분화 로그 값	.40(.32)	1.49	-.83(.60)	.44
가족분화 로그 값×				
성별			1.81(.75)*	6.12
df	8		9	
LR카이제곱	23.01		29.24	
AIC 지수	235.59		231.36	

(\* $P < .05$ )

## 2)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가족분화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앞에서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분화 수준의 성별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가족분화와 성별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가족분화 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모델 2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앞의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후에 모델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경제적 지원 변수가 모델 2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경우 승산비가 2.12 이므로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기혼 성인남녀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승산이 112%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혼 성인자녀가 손자녀 비돌봄 조부모 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김승용·정미경, 2006)와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Lee & Bauer, 2009)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과 가족분화 수준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가족분화 수준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 1>은 분석대상자 가족분화 수준의 평균값인 14.53을 기준으로 최소값인 12.54와 최대값인 15.82의 범위에서 제시하였는데, 기혼 여성 성인자녀가 각각

한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혼 남성의 경우, 가족분화의 수준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 성인자녀의 성별에 따른 가족분화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가족분화 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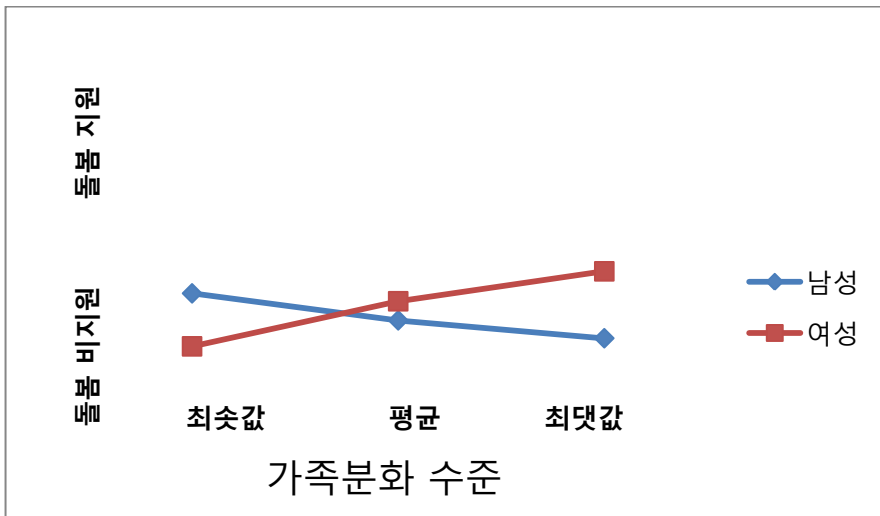
이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가족분화 수준은 분리성과 연결성의 두 가지 하위차원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성은 가족관계 내에서 가족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자아를 유지하는 능력이고, 연결성은 가족구성원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가족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족체계 내에서 분리성과 연결성의 균형을 이룬 성숙한 부모자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모 자녀간의 관계가 기혼 여성의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여성의 가족분화 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이 연구결과는 가족분화와 성별에 따른 연구(Bartle et al., 1989; Chun & MacDermid, 1997; Gavazzi & Sabatelli, 1990, Sabatelli & Bartle, 2003)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모와의 친밀성의 수준이 높고, 원가족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성인 자녀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이후의 부부관계와 결혼적응을 설명할 때, 여성의 가족분화 수준이 남성의 가족분화 수준 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선행 연구 역시 이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부모로부터 자녀 돌봄 지원을 제공받는 데 기혼 여성이 지각한 부모와

의 가족분화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모와 성숙한 성인으로서 맺는 건강한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자녀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기대하는 사회임을 비추어 볼 때 (Gottman, 1994; Gottman, Katz & Hooven, 1997), 기혼 여성 성인자녀가 원가족 부모와 맺고 있는 상호작용 방식인 가족분화 수준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은 부모와의 지원관계에 선택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분화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위에서 제시한 2개의 모델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의 AIC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IC 지수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

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수인데, 독립변수의 수가 다른 모형을 비교하는 경우, 독립변수가 많은 모형이 적합도 면에서 유리할 것이나, AIC 지수는 이것을 고려하여 여러 모델들간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경쟁모형이 여러 개인 경우, AIC 지수는 수치가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한다(홍세희, 2005). 이를 고려하였을 때,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모델 2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가족주의 가치가 강조되었던 시대의 우리나라 전통가족에서는 부모와 기혼 장남가족이 동거하는 부계직계가족의 형태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이전처럼 영유아기 자녀 돌봄 욕구를 가족 내에서 쉽게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동시에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결혼 이후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이어져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돌봄 지원 욕구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 지원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공적 보육 보다는 사적 영역에서의 돌봄 지원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욕구를 감안할 때,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지닌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선호도가 높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은 돌봄 지원을 요청하는 기혼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사건으로서, 부모와 결혼한 성인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적 특성인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은 손자녀 양육을 계기로 부모와 기혼 성인자녀의 세대관계 특성을 파악하는데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기혼 성인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의 영향력을 통제했

을 때, 기혼 성인자녀가 지각한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 327명과 여성 331명 총 658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바탕으로 본 분석에는 부모와 동일한 행정구 내에 거주하는 응답자 남성 72명, 여성 105명으로 총 177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검증, 공간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 성인자녀 중 남성 보다 여성이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기혼 여성이 친정 부모를 비공식적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부계제의 모습과는 크게 다른데, 이러한 이유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세대간 교환 방식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반영(Park et al., 2005)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기혼 여성의 경우 부모로부터 손자녀 돌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을 주로 수행해야 하는 취업여성들은 개인적인 지원책으로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확대가족에서는 동거하는 조부모의 친손자녀 돌봄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면(이재연·김명숙, 1990), 근래에 들어서는 외조부모가 외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백경숙·김영란, 2006; 이영숙, 2010)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취업모인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친정부모에게 부탁함으로써 자녀 돌봄에 대한 자신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내에서 자녀 양육은 주로 여성의 영역으로서 자신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친정 가족 지지망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높은 기혼여성이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가족분화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여성이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더 많이 경험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보인다는 가족분화 관련 연구(Bartle et al., 1989; Chun & MacDermid, 1997; Gavazzi & Sabatelli, 1990, Sabatelli & Bartle, 2003)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원가족 부모와 긍정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의 경우, 부모와의 지원 관계에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인 가족분화 수준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인자녀의 결혼생활과 가족 관계에 아내의 원가족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이 남편의 가족분화 수준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외국의 선행연구(Gavazzi & Sabatelli, 1990, Sabatelli & Bartle, 2003)결과를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성인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여성 기혼 성인자녀의 가족분화 수준이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여전히 돌봄에 있어서 여성이 주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의 돌봄 지원 욕구를 충

족시켜주는 지지망은 여성의 친족관계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가족이 부계일변도의 전통 가족에서 벗어나 양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는 입장(김선영, 2002; 조정문, 1997)과는 달리, 한국 가족의 양계화를 여성의 필요에 따른 사회지원망을 이용하기 위한 비대칭적인 양계화라고 할 수 있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필요에 따른 아내의 친족관계망을 활용하기 위한 선택적 양계화 모습을 보인다(옥선화, 2011)는 의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현재 우리사회는 외현적으로는 남아선호사상과 부계주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는 양성평등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내 자녀 돌봄의 영역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부부간 역할분리의 양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평등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개인의 삶이 구성되고 유지되는 가족생활 내 자녀 돌봄 영역에서는 성별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녀평등이라는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비해, 돌봄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족생활이 양성 평등한 양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른 도시 혹은 농촌 지역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성인집단과 다른 지역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성인집단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부모자녀관계의 특

성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양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이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정기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와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인 손자녀 돌봄인지 정기적인 손자녀 돌봄인지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돌봄 지원의 성격을 상세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부모와 동일한 행정구 내에 거주하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적은 수의 표본으로 인해 통계적 검정력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에 기혼 성인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가족분화 수준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기혼 성인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으로서의 가족분화 수준이 부모의 돌봄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기혼 성인자녀와 부모 관계의 특성이 돌봄 지원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여전히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가족 내 자녀 돌봄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은 원가족 내 지지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유진(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강희경, 조복희(2003).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돌봄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3(2), 41-55.
-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동배·박은영·김세진(2010). 손자녀 주양육자 및 공동양육자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183-209.
- 김미영(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취업모를 자녀로 둔 조모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성기옥·팽경희·최희진·최소영(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4), 905-923.
- 김순기, 유영주(1994).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 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209-219.
- 김순옥, 김수진(2002). 결혼초기 부부의 친족행동 대상 및 정도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 5, 195-215.
- 김승용·정미경(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김원경, 전제아(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1991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김은정 (2011).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취업모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김재희(2010). 유아기 손자녀를 둔 조모의 역할유형과 그 관련변인들: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모-손자녀 접촉 및 조모-어머니 친밀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주희(2009). 결혼초기 여성의 친족관계: 외동딸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21(4), 95-118.

김지경(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유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김태희(2008). 기혼 남녀의 관계적 자기 :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가족분화 수준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03-128.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성인 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남순현, 한성열(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노신애, 진미정(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 자녀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0(3), 135-149.

박경숙(1997). 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20(2), 67-98.

박시라(1999). 자녀양육기 기혼남성의 친족유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충선·이영석·정일선(2003). **농촌 여성노인 가구의 손자녀 양육 실태와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박화운, 이영숙(1999).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4), 67-94.

백경숙, 김영란(2006). 손자녀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4), 109-128.

서문희(2005). **영유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107, 5-18.

신화용, 조병은(2004).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본 노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가 지각한 보상, 대가 및 관계의 질: 한국과 재미교포자녀의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53-174.

심영숙, 서영미(1999).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돌보기 실태. **노인간호학회지**, 1(2), 203-212.

오진아(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옥선화(2011). 한국 가족제도와 가족생활문화의 변화.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127-172.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 수행: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모 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이영숙(2010). 조모의 손자녀 돌봄만족과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12.

이윤정, 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이은희, 하주영, 이정란, 황은희(2009). 맞벌이 자녀를 둔 손자(녀) 돌봄 경험. **질적연구**, 10(1), 1-13.

이재연, 김명숙(1990). 한국 취업모 자녀의 탁아형태 변경양상과 그 문제점. **아동연구**, 5, 13-42.

정미경(2006). 손자녀 돌봄노동에 대한 취업모와 조모의 경제적 지원인식과 향후 출산 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265-292.

정재원, 김문정(2010).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88-296.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도서출판 신정.

조병은, 신화용(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조윤주(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1-21.

조정문(1997). 한국사회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3(1), 87-114.

최셋별, 이명진, 김재온(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감정조절이론(ACT)의 수정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

1-31.

최혜지(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31-49.

통계청(2011). **2011 한국의 사회지표**. 2012년 6월 20일 다운받음, <http://kosis.kr>

한경혜, 한민아(2004). 성인자녀의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과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16(1), 37-61.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2006-2 연구조사보고서.

홍세희(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한경혜, 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2-50.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Bernal, J. G. & Anuncibay, R. F. (2008). Intergenerational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 The socioeducational role of grandparents. *Educational Gerontology*, 34(1), 67-88.

Conway, P., Boeckel, J., Shuster, L., & Wags, J. (2010). Grandparent caregiver's use of resources and services, level of burden, and factors that mediate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8, 128-144.

Dowdell, E. B. (1995). Caregiver burden: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 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5, 8–13.

Fischer, L. R. (1983). Transition to grandmother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6(1), 67–78.

Fuller–Thomson, E., Minkler, M., & Driver, D.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37(3), 406–411.

Gavazzi, S.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Gibson, P. (2002). Caregiving role affects family relationship of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as new mothers again: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8(3), 341–353.

Hogan, D. P., Eggebeen, D. J., & Clogg, C. C. (1993).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428–1458.

Joslin, D. & Brouard, A. (1995). The prevalence of grandmothers as primary caregivers in a poor pediatric populatio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20(5), 383–401.

Kerr, M. E. (1984). Theoretical base for differentiation of self in one' s family of origin. *Clinical Supervisor*, 2, 3–26.

Lawton, L., Silverstein, M., & Bengtson, V. (1994). Affection, social contact, and geographic distanc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7–68.

Lee, J., & Bauer, J. W. (2009). Profile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y*, 8(2), 455–475.

Muller, M. M. & Elder, G. H. (2003). Family contingencies across the generations: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in holistic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404–417.

Park, K–S., Phua, V., McNally, J., & Sun, R. (2005). Diversity and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Elderly parent–adult child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0, 285–305.

Poehlmann, J. (2001). Predictors of grandmother participation in a multigener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3(4), 275–291.

Pruchno, R. & Mckenney, D. (2002). Psychological well-being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Examination of a two-factor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7, 444–452.

Ross, M. E. & Aday, L. A. (2006). Stress and coping in African American grandparents who are raising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 27(7), 912–932.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Shehan, C. L. & Dwyer, J. W. (1989). Parent–child

exchanges in the middle years: Attachment and autonomy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J.A. Mancini(Eds),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MS: Lexington Books.

Silverstein, M. & Marenco, A. (2001). How American enact the grandparent role across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22(4), 493–522.

Troll, L. E. & Smith, J. (1976). Attachment through the life span: Some questions about dyadic bonds among adults. *Human Development*, 19, 156–170.

Weber, J. A. & Waldrop, D. P. (2000).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transi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2), 27–46.

Whitbeck. L.B., Hoyt, D.R., & Huck, S. M. (1993). Family relationship history, contemporary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1025–1035.

## 부록

<부록 1> 분석에 포함된 주요변수들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성별					
2. 월 평균 가구수입	.11				
3. 학력	-.16*	.16*			
4. 경제적 지원 여부	-.16*	.12	.13		
5. 가족분화 로그 값	-.02	-.03	.03	.05	

(\* $P < .05$ )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을 1로 처리한 가변수임)

<부록 2> 전체 조사대상자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여부

(N=658)

		제공받음	제공받지 않음	합계
		(%)	(%)	
남성 (N=327)	맞벌이	46(33.33)	92(66.67)	138
	비맞벌이	46(24.33)	143(75.67)	189
	합계	92(28.13)	235(71.87)	327
여성 (N=331)	맞벌이	76(46.63)	87(53.37)	163
	비맞벌이	56(33.33)	112(66.67)	168
	합계	132(39.88)	199(60.12)	331

<부록 3>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 경향

(N=658)

돌봄 지원 특성	남성 (%)	여성 (%)	합계
평일에 규칙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음	31(32.98)	63(67.02)	94
평일에 비규칙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음	61(46.92)	69(53.08)	130
평일에 돌봄 지원을 받음	92(41.07)	132(58.93)	224
주말에 규칙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음	24(48)	26(52)	50
주말에 비규칙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음	70(44.30)	88(55.70)	158
주말에 돌봄 지원을 받음	94(45.19)	114(54.81)	208
배우자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음	81(60.45)	53(39.55)	134

<부록 4> 전체 조사대상자의 주요 변수 경향

분석변수	평균(SD)	최솟값	최댓값	사례수
가족분화 로그 값	14.56(.52)	12.23	15.82	658
거주지 근접성(km)	65.15(104.47)	0	470	658
월 평균 경제적 지원금액(만원)	27.14(22.54)	5	200	232

<부록 5>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 수준, 양육부담, 친부모님과과의 가족분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중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지도교수 : 옥선화, 진미정

석사과정 : 이향희, 유재언

(02-880-8755)

I.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혼인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기혼(유배우자)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4. 귀하 자녀의 성별과 출생시기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출생시기
	남	여	
첫째 자녀			년    월
둘째 자녀			년    월
셋째 자녀			년    월
넷째 자녀			년    월

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습니까?

-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중퇴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6. 귀하 가구의 월 평균소득(근로소득, 보너스, 재산소득 등)은 총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7. 귀하 가족의 가족수입원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본인의 근로소득    ② 배우자의 근로소득    ③ 동거 가족의 소득  
④ 부동산 및 금융소득    ⑤ 연금소득    ⑥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지원금  
⑦ 친인척의 지원금    ⑧ 기타 (    )

8.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전업주부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직  
⑥ 자영업 ⑦ 없음 ⑧ 기타( )

9. 현재 귀하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까?(해당사항에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해당 없음( )

10. 귀하께서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구 ( )동

11. 귀하께서 현재 주소지에 사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12. (아버지, 어머니 모두 생존해 계시다면) 귀하께서는 부모님과  
현재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두 분과 같이 산다 ② 한 분만 같이 산다 ③ 따로 산다

13. 귀하의 부모님께서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거주자인 경우 ( )구 ( )동

② 서울 거주자가 아닌 경우 ( )도 ( )시(군) ( )동

14. 귀하의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어떻습니까?

- ①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②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④ 전문대 중퇴 혹은 졸업  
⑤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⑥ 대학원 이상

15. 귀하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떻습니까?

- ①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②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④ 전문대 중퇴 혹은 졸업  
⑤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 ⑥ 대학원 이상

16. 귀하의 부모의 월 평균소득(근로소득, 보너스, 재산소득, 연금  
등)은 총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17. 결혼 이전, 부모님과 떨어져 산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얼마나 오래? ( )년 ( )개월) ② 아니오

**II. 다음부터는 귀하의 친부모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8. 평일에, 가장 나이 어린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친부모님이 도움을 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19. 평일에, 규칙적으로 친부모님이 가장 나이 어린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십니까?

①예(하루 평균 돌봄 시간)

②아니오, 규칙적이지는 않으나 특별한 경우 친부모님께서 돌봐주십니다.

20. 주말에, 가장 나이 어린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친부모님이 도움을 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21. 주말에, 규칙적으로 친부모님이 가장 나이 어린 미취학 자녀를 돌봐주십니까?

①예(하루 평균 돌봄 시간)

②아니오, 규칙적이지는 않으나 특별한 경우 친부모님께서 돌봐주십니다.

22. 친부모님에게 미취학 자녀 돌봄 비용을 드립니까? 드린다면 비용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돌봄비용"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및 생활비와는 별도로, 귀하 자녀 양육에 대한 현금 또는 현물 사례를 뜻합니다"

① 드린다 (월 평균 만원) ② 드리지 않는다, 해당 없음



중한다.					
4)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의 생각을 강요하는 편이다.					
5)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					
6) 아버지는 나에게 말하는 것과 진짜 의미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7) 아버지는 나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8) 아버지는 내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9) 아버지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10) 아버지는 내가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11) 아버지는 내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9. 평소에 귀하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나 느낌에 대해 귀하가 느끼신 대로 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함	대체로 동의 안함	가끔 그렇다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1) 어머니는 나의 견해가 어머니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2)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3) 어머니는 나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어머니는 나에게 어머니의 생각을 강요하는 편이다.					
5)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					
6) 어머니는 나에게 말하는 것과 진짜 의미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7) 어머니는 나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8) 어머니는 내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9) 어머니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10) 어머니는 내가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11) 어머니는 내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0. 평소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함	대체로 동의 안함	가끔 그렇다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1) 나는 아버지의 견해가 나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2) 나는 아버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3) 나는 아버지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나는 아버지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편이다.					
5) 나는 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					
6) 나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진짜 의미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7) 나는 아버지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8) 나는 아버지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드린다.					
9) 나는 아버지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10) 나는 아버지가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아버지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31. 평소에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함	대체로 동의 안함	가끔 그렇다	대체로 동의	전적 으로 동의
1) 나는 어머니의 견해가 나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2) 나는 어머니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3) 나는 어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4)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편이다.					
5) 나는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					
6) 나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과 진짜 의미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7) 나는 어머니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8) 나는 어머니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드린다.					
9) 나는 어머니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10) 나는 어머니가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어머니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 Abstract

# **Family Differentiation between Married People and Grandparents’ Caregiving**

**Hyanghee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constant influence that family of origin exerts on grandparental childcare. This was accomplished by examining the levels of family differentiation, taking into account autonomy, the ability of maintaining one’s self within a family, and the sense of emotional sharing with other family members and how these factors affect grandparental child c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58 married people (327 male, 331 female) who had at least one pre-school child. This study, for further analysis, narrowed the respondents to 183 parents (75 male and 105 female) who lived in the same ‘Gu’, meaning neighborhood, as their parents. The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frequency and mean an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outlined below.

First, the only social demographic variable which had a significantly effect on grandparental child care was gender, and the affect was noted for female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for gender difference and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on grandparental child care. In the case of married women,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grandparental child care. However, in the case of married men, there was no influence.

This study found that married women's accounts of their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re more salient than married men's accounts when it comes to the utilization of grandparent caregiving. Put another way, married women have more of a child-rearing burden and rely more on resources in their family-of-origin relationships.

**Key words: Family differentiation, Grandparental childcare, Proximity, Gender difference**

**Student number: 2010-21619**